



KOCHAM ECONOMIC NEWS

제 2012-65 호



2012년 9월 13일(목)

미국 경제 동향

- 1) 8월중 생산자물가 상승률 예상외 상회
- 2) 9월 둘째주(8/2-8/8)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 급증
- 3) 2011년중 중간 가계 소득 전년대비 1.5% 감소

해외 경제 동향

- 1) 중국, 미국 에너지 시장 본격적인 진출

산업·시장 동향

- 1) 삼성물산, 영국 금채굴기업 클러프골드社와 2천만불 규모 투자계약 체결

미대선 후보 비교 및 주요사항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8월중 생산자물가 상승률 예상의 상회

- 지난 9월13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8월중 생산자물가 지수가 계절 조정치로 1.7%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
 - 전문가들은 1.5% 상승을 예상한바 있음
- 이는 휘발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
 - 지난 8월 휘발유 도매가격과 천연가스는 각각 13.6%, 11.9% 상승, 이 결과 전체 에너지 가격이 6.4% 상승
 - 또한 8월중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월대비 8% 급등한 갤런당 3.84달러로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
- 아울러 8월중 식품 도매가격은 유가공과 계란 가격을 중심으로 0.9%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
 - 식품 가격은 가뭄의 영향으로 향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

2) 9월 둘째주(8/2-8/8)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 급증

- 지난 9월13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9월 둘째주중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전주대비 1만5천 건 증가한 38만2천 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
 - 이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최대치로 전문가들은 37만 건을 예상한바 있음
 - 9월 첫째주 실업수당 신청건수도 당초 36만5천 건에서 36만7천 건으로 상향 조정
- 이는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
 - 미국 노동부는 전체 실업수당 신청건수 증가분 중 9천 건이 지난 8월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작 때문이라고 설명
 - 또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실업수당을 처리하는 사무소가 폐쇄, 정상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못해 9월 첫 주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렸다고 설명

3) 2011년 중 중간 가계 소득 전년대비 1.5% 감소

- 지난 9월12일(현지시간) 미센서스국은 지난 2011년 미국의 중간 가계소득이 인플레이션 조정치로 5만54달러로 집계, 전년 대비 1.5% 감소하였다고 발표
 - 이로써 미국의 중간 가계소득은 4년째 감소세를 기록
 - 이는 경기침체 이전보다 8.1%,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 5만4,932달러대비 8.9% 감소한 결과
 - 한편 미국의 가계소득은 1999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를 포함, 11년간 감소하여 16년 전 수준으로 후퇴
- 한편 지난 2011년 중 미국내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급여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지난해 정규직 일자리는 2010년대비 200만개 이상 증가한 반면,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근로자들의 급여는 2.5% 감소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중국, 미국 에너지 시장 본격적인 진출

- 지난 9월12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중국수출입은행이 시애틀 소재 발전업체 서밋파워그룹의 발전소 건설 자금을 단독 대출, 중국 국영 석유 회사인 시노펙이 발전소의 주요시설 건설을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보도
 - WSJ은 중국이 미국 발전소 건설에 주된 역할을 맡으며 미국 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분석
- 한편 중국이 미국내 에너지 사업 부문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삼성물산, 영국 금채굴기업 클러프골드社와 2천만불 규모 투자계약 체결

- 지난 9월12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삼성물산이 클러프골드社가 서아프리카에서 진행중인 금 채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
 - 삼성물산은 이번 계약으로 금을 시장 가격대비 2.25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
 - 또한 클러프골드는 매월 1,929 온스(약 55Kg)의 금을 삼성물산에 배송할 예정
- 전문가들은 최근 금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삼성물산이 금 확보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

□ 미대선 후보 비교 및 주요사항

- 최근 민주·공화 양당은 11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로 접어듦
 - 금년 5월 기준, 오바마 대통령(민주)과 미트 롬니(공화)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9%와 46%로 미트 롬니 후보가 3%p까지 차이를 좁히는 양상
 -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
 - 반면,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세제, 재정건전화, 외교정책 등 분야의 변화가 예상됨

<美대선 후보 비교>

Barack Hussein Obama(민주)	Willard M. Mitt Romney(공화)
(1) 출신 및 배경	
	
1961년 8월 4일, 하와이주 호놀룰루 출생 옥시덴탈대(CA), 콜롬비아대(NY) 졸업 하버드대 법과대학원 졸업 시카고법대 강사, 인권변호사 활동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(1997-2004) 연방상원의원 (2005-2008) 現미국 대통령	1947년 3월12일생 미시간 디트로이트 출생 스탠포드대, 브리검영대 졸업 하버드대 경영학 석.박사 및 법과대학원 졸업 사모펀드 Bain Capital 공동창립, CEO 재직 (1984-2002)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(1999-2002) 매사추세츠 주지사 (2003-2007) 아버지(조지 롬니)는 자동차 회사 AMC의 CEO, 미시간 주지사, 닉슨정권의 주택도시개발부장관 역임
(2) 주요 정책 비교	
정부의 적극적 개입 - 단기적인 시제 혜택,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확대 - 버핏률을 적용한 부유세 증세 옹호 - 월가 등 금융권 규제 강화 - 최고법인세율 35% → 28%	친시장주의 - 직접적인 지출증가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고용확대 선호 - 증세 반대 - 국내 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 - 최고법인세율 35% → 25%
경 제	

강 화 - 건보개혁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천명 - 연방대법원 합헌판결, 내년부터 시행 예정	복 지	현상유지 또는 축소 - 건보개혁법안 즉시 폐기 - 연금 및 저소득·노인층 의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결
협력과 압박 - 동맹국과의 협력 강조 - 對北: 제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핵무기 확산 방지 - 對中: 인도-베트남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견제 강화, 동시에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 - 對중동: 동맹국과의 협력 유지 아프가니스탄, 이라크 내 병력 단계적 철군 이집트, 리비아 등 독재국가 압박	외 교	강경노선 회귀 - 오바마의 접근방식 비판, 외국내 미국 영향력 강화(부시정책과 유사) -對北: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-對中: 외환조작국이라고 비판, 중국과의 무역 관행 타파 등 강경한 입장 고수 -對중동: 노골적 親이스라엘 성향 이란 핵보유 저지를 위한 군사적 행동 고려
우호적 - 불체자에 대한 조건부 합법화 견해 유지	이 민	선별적 우호 -고학력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긍정적 입장 -불체자 합법화는 반대
찬성 - 지난 5월 동성결혼 지지입장 밝힘	동성 결혼	반대 - 동성결혼을 위해서는 헌법수정이 필요, 보수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견지

- 전당대회 분위기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나았다는 평가
 - 참석자 98%가 백인이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와는 달리 민주당 전당대회는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이 다양하게 참석
 - 또한 공화당 전당대회는 롬니 후보의 수락연설 때를 제외하곤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지만,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회 기간 내내 만석을 유지
- 한편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시작과 함께 대선후보 부인들의 전당대회 연설이 크게 주목을 받음
 - 공화당 대선후보 롬니의 부인인 앤 롬니 여사는 둘째날 전당대회에서 비판적인 연설 대신 고교 시절 롬니와의 러브스토리를 통해 그의 부정적인 사업가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주력, 인상적인 연설이었다고 평가됨



<플로리다 탬파에서 개최된 공화당 정당대회 둘째날 연설에 임하고 있는 앤 롬니 여사>

- 한편 미셸 오바마 영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헌신과 고민을 부각시키고, 보통 미국인임을 강조하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명연설이었다고 평가됨



<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된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미셸 오바마 여사>